

# 환경의 새천년 - 이제는 실천할 때



박대문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 I. 스톡홀름에서 리우까지

### - 글로벌 녹색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

환경보전사(史)에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회의가 세계 각국 정부의 대표들이 심화된 환경위기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함께 모여 논의한 최초의 모임이었기 때문이며, 환경문제가 국소적·국가적 차원의 관심사에서 탈피하여 점점 지구적인 차원의 중심과제로 등장시키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적 환경협력이란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The Declaration and Action Plan)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국제적인 환경법을 발전시키는 바탕을 제공했으며,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환경관련 정부 부서를 설치하고 장관을 임명했으며 10만여개가 넘는 환경단체가 세계 각국에서 탄생되어 활동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972년 제27차 UN 총회는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각성과 의지

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스톡홀름에서 짝을 띄운 국제적 환경협력은 1992년 리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로 그 꽃을 피우게 되었다.

UN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도시를 선정하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세계 환경의 날에 자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에 매년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97년에는 서울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정부 차원의 기념식과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II. 21세기 환경문제의 전망

### 1. 지구 환경문제의 전망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지구환경조망 2000」보고서는 21세기 인류가 처한 가장 긴급한 환경문제로 지구 온난화, 물부족, 대기오염등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이미 지난 '97년에 세계의 인구는 59억의 수준에 달했으며, 증가추세가 현재의 속도로 진행될

경우 2025년에는 80억 그리고 2070년에는 1백억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가 환경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환경오염의 집중화와 자원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15년에는 세계 인구의 6억8천만명이 기초 수요에도 못 미치는 식량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수자원과 수질오염의 문제도 위협적인 상태에 이르고 있다. 현재도 세계인구의 약1/3이 물부족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2025년에는 2/3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매일 70-200여종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어 50년 이내에 지구상의 생물종 3,000만여종의 1/4이 멸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인간 건강과 생태계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다.

넷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으로 매 10년마다 2-4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남극 상공의 오존층은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북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산림파괴와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어 지구상 숲은 1/3이상이 이미 상실되었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음 세기가 오기전에 모든 열대 우림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환경동향과 전망

첫째,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5천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율의 둔화로 인해 인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인당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량과 1인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고급화되고 다양해져 고품질의 환경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자동차, 철강, 석유, 전자등 주력 산업의 축소와 환경, 생물,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가 성장의 중심축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따라 환경오염 물질도 신기술 개발에 따라 내분비 장애물질 등 예상치 못한 환경오염 물질의 등장이 우려된다.

셋째, UN이 이미 21세기에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했듯이 그간의 공급 위주의 수자원 개발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제부터는 수자원의 수요 관리를 통한 공급의 압박을 해소하고 대규모 댐보다 환경피해가 적은 중소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등 환경친화적 수자원의 이용을 통해 환경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1차에너지 수요의 감소와 천연가스 등 저오염배출 에너지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 생활의 보편화에 따른 도시용지의 증가 등 토지 이용형태의 변화와, 과도한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환경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 III. 새로운 국가 환경정책의 지향과 준비

### 1. 새로운 국가 환경비전의 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래 경제 우선의 불균형 개발전략에 의해 압축성장으로 단기간에 걸친 국민소득의 급격한 증가 등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취약한 오염 예방 구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성장 과실의 상당한 부분을 잠식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인구증가와 산업활동은 앞에서 살펴본것처럼 심각한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계속적인 각종 오염 부하의 증가, 유해 화학물질

과 내분기계 교란물질 등 새로운 오염문제의 대두와 점차 광역화 되어가는 환경문제의 총체적 해결과 우리 후손의 항구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근원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2. 새로운 국가 환경비전 및 전략의 준비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환경문제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새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의 사회·경제상을 전망하고 새로운 국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및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새천년 국가 환경비전 선언」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대 국민 선포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새천년의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3. 새로운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21세기 국가 환경정책비전도 ESSD(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근간이 될 것이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수 있는 고생태 효율의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순환형 사회, 즉 저 환경 비용 고생산 효율의 사회체제로의 개편이 그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존중과 환경정의의 구현, 생태 효율이 높은 생산 및 소비체계의 구축,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국토환경의 조성, 환경친화적 과학 기술 및 기술 혁명의 유도, 지구 및 지역 환경 보전활동의 선도 등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 IV. 환경의 새천년 - 이제는 실천할 때

UNEP는 금년 2000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를 「환경의 새천년 - 이제는 실천할 때, The Environment Millennium-Time to act」로 정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인류에게 참으로 시의적절한 메시지라 아니 할 수 없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환경의 날의 상징적 의미와 국민적 참여, 새로운 환경사랑 실천을 다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천년의 환경윤리·가치관, 자원절약적 생산·소비, 환경친화적 개발,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방안 등을 담은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서는 「새천년 환경경영 헌장」을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등 민간단체에서는 「민간환경선언 2000」을 선포하는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환경사랑 실천 선언과 각종 환경 테마 행사의 개최 등 환경실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결국 우리 모두의 환경친화적 의식변화와 실천이 그 관건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참여와 실천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새천년 환경의 화두는 바로 환경사랑과 실천인 것이다.

### • 필자약력

- 전남대·상과대학 경제학과 졸
- 미 일리노이대학원 경제학과 졸
- 경기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중
- 조정평가실 평가제도과장
-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재활용과장
-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장
-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장
-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장
- 환경공무원교육원장
- 대통령비서실행정관
- 현 환경부 환경정책국장